

Contents

인사말

- 인사말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02

2022년 사업보고 및 2023년 사업계획 03

2023 특별기획 (총 4회 연재)

- 민족 영웅 홍범도 장군의 삶과 투쟁(1) 09
반병률 (홍범도아카데미 원장, 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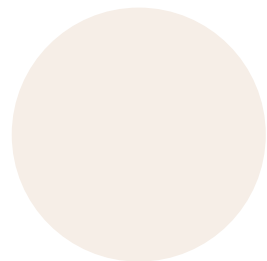
행사

-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대전모임 발족의 의미 14
오광영 (홍범도기념사업회 대전모임 공동대표)

기념사업회 소식

- 신임이사 및 감사 선임 15

회원동정 16



인사말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원식 이사장입니다.

따스한 기운을 머금은 4월입니다. 봄이 선물해주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짧은 봄날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소중한 시간들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홍범도장군 순국 80주기가자 유해봉환 3주기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기념사업회는 홍범도장군 유해 봉환 이후 고려인들의 서운한 마음을 달래고 독립운동 정신과 뜻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과 지속가능한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범도장군 유해봉환 후속 사업으로 홍범도장군 묘역을 기념공원으로 만들고 주변을 홍범도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이 금년 6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묘역을 봉오동전투의 지형을 형상화한 참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역사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우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주립대학이 협력하여 올해 4월부터 '홍범도 컬리지' 이름으로 현지 대학 내 IT학과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국의 농업기술 교류를 위해 전라북도와 크즐오르다주 간 MOU를 맺는 데도 기념사업회가 주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군의 80주기인 만큼, 장군이 마지막으로 근무하셨던 카자흐스탄 국립 고려극장 단원들을 초청해 의미 있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3회 홍범도 사격대회'를 춘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포수출신 홍범도장군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으뜸가는 사격대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의 외조부는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정책에 저항하다 처형당한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으로 제가 바로 고려인 후손이기도 합니다. 고려인 후손이자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고려인 동포들이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습니다. 높아진 국격과 위상에 맞게 국내 고려인 사회뿐만 아니라 나아가 재외동포들의 기본권과 지원정책을 위한 제도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념사업회가 국민들의 사랑 속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2023년 예산·사업계획

2022년 결산 및 2023년 사업계획

2023년 3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했으며, 2022년 사업보고와 2023년 사업계획을 의결하였다.



2022년 사업보고

I. 사업 목표

1. 2021년 순국 78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하신 홍범도 장군의 독립정신을 선양하고 기림
2. 독립전쟁의 의미와 역사성을 기념하는 독립전쟁 선양사업으로 매년 <독립전쟁 전승 기념 행사>를 개최, 독립전쟁의 대표적 인물인 홍범도 장군의 독립정신과 독립전쟁 역사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고취 시키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념

II. 세부사업 내용

1. 2022 독립전쟁 전승 기념식(1)

가. 목적 : 봉오동전투 전승 102주년 기념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6월 7일 15시
- 장 소 : 국회 도서관 대강당
- 사업내용 : 1920년 6월 7일 독립전쟁의 첫 승리를 가져온 봉오동 전투의 배경, 전투상황, 역사적 의의를 함께 나누며 홍범도장군의 독립정신을 기림.

2. 2022 독립전쟁 전승 기념식(2)

가. 목적 : 청산리전투 전승 102주년 기념 및 순국 79주기 추모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10월 25일 11시
- 장 소 : 국립대전현충원
- 사업내용 : 회원 50여명 참석하여 홍범도 장군 묘역 앞에서 추모식 진행

3. 2022 독립전쟁 전승 기념식(3)

가. 목적 : 유해봉환 1주년 기념 참배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8월 15일
- 장 소 : 국립대전현충원
- 사업내용 : 회원 50여명 참석하여 홍범도 장군 묘역 앞에서 유해 봉환 1주년 기념 참배 실시

4. 2022 유해봉환 후속사업(1)

가. 목적 : 고려인 동포 서울 역사·문화 투어(대한고려인협회 공동사업)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6월 19일
- 장 소 : 서울 일대

다. 시행방법 : 고려인 학생 30명과 함께 경복궁, 서울타워, 63수족관, 우당이회영기념관 견학

라. 기타사항 : 한국 거주 고려인 학생들에게 조국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이해도를 고취할 수 있는 자리가 됨.

5. 2022 유해봉환 후속사업(2)

가. 목 적 : 서울과기대-크즐오르다국립대학 협력사업 지원

나. 사업내용 : 홍범도장군 유해 봉환에 맞추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크즐오르다국립대학의 교류를 기획·주선 하였으며, 그 결과로 서울과기대와 크즐오르다대학이 학생교류 협약을 체결하였고, 우리 정부의 ODA 지원사업으로 크즐로르다대학 내에 인공지능정보대학(4개과 개설, 일명 홍범도장군칼리지) 설립 사업을 현실화함. (2023년부터 7년간 28억원 지원)

6. 2022 홍범도 역사 탐험대(1)

가. 목 적 : 백령도 안보 투어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7월 23일 ~ 24일
- 장 소 : 백령도
- 사업내용 : 남북 대치 상황에서 항일 독립 정신의 현재적 의미를 찾는 안보 투어

다. 시행방법 : 기념사업회 회원 19명이 천안함 위령탑 및 백령도 제9196부대(해병대 제 6여단)에서 안보 견학 진행

7. 2022 홍범도 역사 탐험대(2)

가. 목 적 : 카자흐스탄 역사 탐사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10월 28일 ~ 11월 3일
- 장 소 : 카자흐스탄 알마티 & 크즐오르다
- 사업내용 : 홍범도장군 구 묘역 참배 및 유해봉환 후속사업 진행

다. 시행방법 : 기념사업회 회원 15명이 카자흐스탄 방문하여 관련 기관 미팅 진행

라. 기타사항

- ▶ 원래 계획한 봉오동 역사탐사가 중국 공안당국의 불허로 카자흐스탄으로 장소 변경 됨.
- ▶ 홍범도장군 유해봉환 1주년 및 제83주년 순국선열의날을 맞이하여, 카자흐스탄 고려인 단체의 행사 참석 및 면담을 통해 홍범도장군 유해봉환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고려인 사회, 카자흐스탄, 그리고 한국과의 지속적인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사업추진 협의

-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신임 회장단, 고려극장 관계자, 독립유공자자손재단 관계자 등과 면담 및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고려인들이 강제이주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온 것에 감사를 표하고,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 후 고려인 사회의 서운함을 극복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뜻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고려인 사회와 한국과의 지속가능한 교류 협력 사업을 협의함.

▶ 홍범도장군 유해 봉환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 농업기술 교류 사업 발판마련

- 전라북도과 크즐오르다주 간의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 및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농산품교류를 사전 주선하였으며 그 결과로 전북과 크즐오르다주는 MOU를 체결하기로 하였고, 김관영 전북 도시자의 초청장을 크즐오르다 주지사 (Mr. Nalibayev Nurlybek Mashbekovich)에게 전달함.

▶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육 교류 사업 진행 상황 점검 및 향후 협력 방안 논의

- 크즐오르다대학 총장단과의 면담을 통해 서울과기대와와의 교류사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상호 관심과 노력을 다 할 것을 협의함.

8. 제2회 홍범도장군배 사격대회

가. 목 적 : 일제 강점기 독립전쟁 승리를 이룬 홍범도 장군의 위업을 기리며 독립정신을 계승함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10월 20일 ~ 23일
- 장 소 : 전라남도사격장(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다. 기타사항

- 경기종목 : 8개 종목
- 10m 공기소총(남(시니어, 주니어) / 여(시니어, 주니어))
- 10m 공기권총(남(시니어, 주니어) / 여(시니어, 주니어))
- 참가규모 : 전국 77개팀 240명의 사격선수 참가
- 대회 결과

< 수상자 현황 >

구분(권총)		소속	이름	구분(소총)		소속	이름
남자시니어	1위	창원특례시청	김청용	남자시니어	1위	보은군청	이상휘
	2위	경기도청	이대명		2위	서산시청	박성현
	3위	동명대	조원준		3위	보은군청	김우림
여자시니어	1위	임실군청	김예지	여자시니어	1위	경기도청	박선민
	2위	KB국민은행	김민정		2위	청주시청	박다혜
	3위	서산시청	유현영		3위	울진군청	최은정
남자주니어	1위	전북체고	김강현	남자주니어	1위	대전체고	정성현
	2위	대전체고	김현수		2위	한광고	방승호
	3위	홍덕고	이종혁		3위	울산상고	배서준
여해주니어	1위	제주여상	오예진	여해주니어	1위	울진군청	장정인
	2위	동해시청	김정은		2위	울진군청	권은지
	3위	임실군청	이시윤		3위	여수여고	박예은

9. 2022 학술회의 (제13회)

가. 목 적 : 순국 79주기 및 봉오동전투·청산리전투 전승 102주년 기념 학술회의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12월 9일 14시
- 장 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사업내용 : 2021년에 이어 ‘홍범도와 그의 동지들 2’ 주제로 학술회의의 진행. 참가인원 약 100명.

다. 시행방법 : 안무, 최진동 박경철의 항일투쟁 역사에 대한 3편의 논문 발표와 함께 토론 진행



2023년 사업계획 보고

I. 주요사업 목표

1. 홍범도장군의 유해봉환 2주년 기념 및 순국 80주기를 추모하며,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연구하여 역사적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그의 독립정신을 선양하고 기림
2. 독립전쟁의 의미와 역사성을 기념하는 독립전쟁 선양사업으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독립전쟁 전승 기념 행사>를 개최, 독립전쟁의 대표적 인물인 홍범도장군의 독립정신과 독립전쟁 역사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고취 시키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념
3. 홍범도장군 유해봉환 후속사업으로서 고려인 문화·역사 교육사업을 통해 고려인 사회와의 교류 및 정체성 유지·발전과 카자흐스탄과의 민간 우호협력 관계 발전에 기여

II. 세부사업 내용

1. 봉오동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식

- 시행시기 : 6월 7일
- 장 소 : 국회 도서관 예정

2. 청산리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 및 순국 80주기 추모식

- 시행시기 : 10월 25일
- 장 소 : 국립대전충원

3. 제3회 홍범도장군배 전국 사격대회

- 가. 목 적 : 포수 출신 홍범도장군과 가장 관련도가 높은 운동 종목인 사격대회를 통해 총을 들고 항일투쟁을 한 독립전쟁의 한국 역사에서의 의미를 국민에 효과적으로 알림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6월 8일 ~ 11일
- 장 소 : 강원도 춘천시

4. 2023 탐험대

- 가. 목 적 : 독립운동의 실제 현장을 돌아보며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전체 회원에 전달
- 나. 사업내용
 - 해외 - 7월 경, 블라디보스톡 일대
 - 국내 - 상반기 1회 - 하반기 1회
 - 특별 : 홍범도함 탐방 및 위문

5. 2023 학술회의 (제14회)

- 가. 목 적 : 홍범도장군 관련해서 기존 연구가 미진한 부분을 발굴하여 심도있는연구와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독립역사 연구 심화에 기여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11월 경
- 장 소 : 국회 도서관
- 사업내용 : “홍범도와 그의 동지들(3)”
 - 고려극장 극작가 태장춘과 연극 “의병들”
 - 항일혁명가 이인섭과 “홍범도장군 분묘수리위원회”
 - 레닌기치 부주필 김국천과 “홍범도 장군 추모비 건립위원회”

6. 유해봉환 후속사업(1) 국내 고려인 학생 자녀 역사 교육·탐사

- 가. 목 적 :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학생 자녀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고 체험하게 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한국어 공부에 동기 부여
-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4월 15일
 - 장 소 : 서울 일대
 - 사업내용 : 30명 고려인 학생이 서울 역사 유적지 탐방
- 다. 시행방법 : 대한고려인협회와 협업

7. 유해봉환 후속사업(2) 고려인 문화 교육·전수 사업

- 가. 목 적 : 카자흐스탄 거주 고려인에게 한국 문화의 교육을 통하여 고려인의 한국 이해를 돕고 한국과 고려인 교류에 도움이 됨.
-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6월(4주), 12월(4주)
 - 장 소 :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크즐오르다
 - 사업내용 : 한국의 사물놀이 교육
- 다. 시행방법 : 한국 전통 문화 전문가를 파견하여 고려인 대면 교육 실시

8. 유해봉환 후속사업(3) 서울 과기대 - 크즐오르다국립대학 교류 지원

9. 독립유공자 미전수 훈장 연고 기관 전시 사업

가. 목 적 : 독립유공자 후손 미확인으로 전수되지 못한 훈장을 유공자의 연고기관에 전시하여 유공자의 공훈을 널리 선양 (민족문제연구소 협업)

나. 사업내용

· 독립유공자 미전수 훈장 : 6,963명(전체 17,568명의 39.6%)

훈격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건수	1	5	171	2,680	2,197	482	1,427
%	0.005	0.028	0.97	15.26	12.51	2.74	8.12
비고	오동진	남상덕 박용만 이재명 장인환 채상덕	안경신 안공근 이재유 조도선 채응언 채 찬 등				

· 유족이 나타나기 전까지 아래 기관에 전시

- (1) 유공자의 연고기관(학교, 사관학교, 종교기관, 종친회 등)
- (2) 유공자의 본적지 행정기관
- (3) 유공자의 본적지가 북한 지역인 경우 - 이북5도위원회

10. 고려극장 한국 초청 순회 공연 및 전시회

가. 목 적 : 1932년 9월 9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창립된 이후 1937년 강제이주 후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공연예술의 정신을 이어온 고려극장 공연 및 전시회를 통하여 고려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류의 기회로 삼는다.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8월 15일 경(고려극장과 일정 조율 중)

· 장 소 :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

11. 대전지역모임 발족

가. 목 적 :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묘역 관리와 기념사업회의 활성화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3월 18일 발족식 시행 (회원 약 100명)

· 장 소 : 대전

· 사업내용 : 대전지역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묘역 관리 및 참배객 안내 봉사활동 실시

다. 기타사항 : 묘역 앞에 방명록 QR코드판을 설치했으며, 이를 통하여 참배객들이 장군을 기리며 방명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기념사업회 후원회원이 될 수 있는 기회 마련.

12. 홈페이지 개편

가. 목 적 : 장군의 유해봉환 이후 홈페이지 구성, 디자인 및 내용 개편을 통하여 장군의 항일독립투쟁 정신 및 업적에 대한 자료의 가독성 높이고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인다.

나. 시행시기 : 4월부터

2023 특별기획 (총 4회 연재)

민족 영웅 홍범도 장군의 삶과 투쟁(1)



반 병 룰 홍범도아카데미 원장, 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문재인 정부의 각별한 배려와 국민들의 감동적인 환영 분위기 속에서 한국으로 봉환된 지 어언 2년이 다 되어간다.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홍범도 장군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넓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한 듯,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들이 간행되었거나 출간될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전후하여 일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이들이 역사적 사실과 맥락에 대한 왜곡과 자의적 해석을 통하여 홍범도 장군의 삶과 투쟁에 대한 이념 덧씌우기 등의 정치적 공세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홍범도 장군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로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관련된 쟁점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사실과 해석의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이다.

‘홍대장’이라 불린 전형적인 평민 출신의 독립군 대장

홍범도는 ‘불패의 전설’을 남긴 저명한 항일 투사로서 한국 근현대사, 특히 독립운동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1890년대 후반 항일의병투쟁에 나선 이래 한말의병과 3·1운동 이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이르기까지 항일무장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한 민족영웅이다. 홍범도의 항일투쟁의 역사는 투쟁 기간의 장구함에서는 물론이고 투쟁의 치열함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자취를 남겼다.



홍범도는 ‘군벌적 계급의식’이나 ‘특권의식’이 없지 않았던 양반이나 관료, 지주 출신의 독립운동가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전형적인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자 독립군 지도자였다. 그는 휘하의 부대원들과 부두 하역장, 금광, 어장 등에서 막노동을 함께하며 생사고락을 나누었던 지도자였다. 그리하여 부하들과 민중들은 그를 ‘홍대장’이라 부르며 깊은 존경과 신뢰의 마음을 보여주었다. 홍범도 군대에서 의병투쟁을 함께했던 ‘늙은 빨찌산’ 출신의 고려인들은 “그는 과연 총놀이를 잘하지요, 과연 동무들을 사랑하지요, 언제든지 행군할 시에는 자기가 앞에 서서 갔지요, 간 곳마다 지방주민들이 그를 진정으로 존경하였지요”라며 이구동성으로 동지이자 상관이었던 홍범도를 자랑스럽게 회상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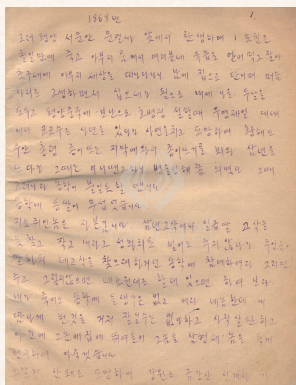
가족에 관한 얘기를 멀리했던 홍범도 장군

홍범도는 휘하의 동지들과 일반 대중들의 신뢰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평민 출신의 의병장, 독립군대장이었지만 정작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홍범도는 누구를 만나든지 초면 인사를 할 때면, “나는 갑산 포수요”하거나 “북청사람이요”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홍범도 자신의 구술을 바탕으로 쓴 『홍범도 일지』가 국내에 소개되기 전까지, 홍범도의 출생지가 북청이나 갑산 또는 삼수 등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

홍범도는 친밀한 전우들이 조용하게 자기 고향을 말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문의하면 항상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고 한다. “동지는 벌써 조선이 독립된 줄로 알고 있소?! 누가 자기 고향이나 친척이 없겠소마는 우리 고향인 그곳에는 우리 친족들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왜놈들과 왜놈의 ‘개’들인 조선 놈들도 살고 있는 것을 언제든지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홍범도는 전 가족이 일본군으로 인하여 희생되어 늘어 서도 후손도 없이 적적인 생계를 유지하다가 세상을 떠난 만큼, 누구든지 가족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홍범도 장군이 자신의 가족에 관한 회상과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자신의 일생을 회고한 『홍범도 일지』에서도 홍범도는 선조(先祖)는 물론이고 심지어 부모의 성함조차 남겨 놓지 않았다.

『홍범도 일지』는 1938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있는 고려극장의 극작가 태장춘이 연극 『의병들』(이후 홍범도로 개칭)의 희곡을 쓰기 위하여 홍범도 장군을 자기 집으로 여러 날 초대해서 구술케 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나마 홍범도는 『홍범도 일지』에서 부인 “단양 이씨”와 두 아들의 이름 “양순”과 “용환”을 밝혀 놓았을 뿐이다.



▲ 홍범도 일지(이함덕본)
-홍범도의 출생과 유년기를 적은 첫 페이지

홍경래 가문의 후손?

홍범도의 증조부와 관련하여 1811년 평안도 농민반란의 주역 홍경래와 연관시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유포되어 있다. 홍범도를 처음으로 홍경래와 연관시킨 사람은 『역사기록 소설 홍범도』를 쓴 고려인 작가 김세일이다. 그는 1965년부터 1969년까지 124회에 걸쳐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간행되던 고려인 한글신문 『레닌기치』에 소설 『홍범도』를 연재하여 고려인 독자들과 평론가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김세일은 이 작품을 수정·보완한 원고를 소련 해체 직전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고(故) 고송무 교수에게 건네주어 한국에서 『역사기록소설 홍범도』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였다. 소설 『홍범도』를 쓴 김세일은 1945년 8월 소련의 대일전(對日戰)에 정치부 일꾼으로 참전하였고 이후 평양에 남아 1954년 1월까지 9년간 소련군 신문사에서 일하다가 소련으로 귀환한 인물이다. 북조선에 체류할 당시 김세일은 간혹 홍범도를 아는 노인들로부터 “홍범도가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한 노인으로부터 “홍범도가 신출귀몰하는 의병장이라고 소문나니 어떤 분들이 홍범도가 홍경래네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담한 용장이 되었다고 합디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김세일은 소설을 쓰게 되면서 이 노인의 말을 되살렸다고 한다. 그리하여 소설에서 홍범도의 증조부를 “홍경래와 그리 멀지 않은 친척으로” “평안도 용강 화장골에서 홍경래네와 같이 살았던” 인물로 묘사하였다. 농민봉기가 진압되고 홍경래 가문이 전부 화를 입게 되면서 홍범도의 증조부가 평양으로 이사 와서 장사치 노릇을 하며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김세일의 소설에서 홍범도의 할아버지는 미국 해적선 ‘제네랄 샤만’ 사건 당시 민병대에 자원하여 관군과 더불어 ‘샤만’호를 습격하다 적의 흉탄에 맞아 전사한 인물로 설정되었다. 송은일 작가의 소설 『나는 홍범도』에서는 홍경래가 홍범도의 고조부로, 증조부는 ‘홍장양’으로 묘사되어 있다.

유년기의 고달픈 머슴살이-가난, 억압, 차별과 싸우며 사회의식 키워

유년기에 홍범도가 겪은 고통은 보통 사람들과 비교하여 매우 특이하였다. 홍범도는 1868년 8월 27일(음력) 평양 서문(西門) 안 무열사 앞에서 태어났다. 홍범도의 어머니는 그를 낳은 지 7일 만에 죽고 아버지는 그의 나이 갓 9세가 되는 때 세상을 떠났다. 홍범도는 1928년 은퇴하면서 당국의 연금수령 자격 심사에도 필요한 서류로서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리력서」와 「양케이트」에서도 부모의 성함을 적지 않았다. 단지 자신의 사회 성분을 ‘빈농민 가정’이라고 적시했을 뿐이다.

어머니에 대하여 『홍범도 일지』에서 홍범도는 “모친은 칠일 만에 죽고”라는 짧은 한마디밖에 남겨 놓지 않았다. 고려인 작가 김세일은 『역사기록 소설 홍범도』에서 어머니가 죽은 후에 홍범도의 아버지가 “안해를 대성산 기슭에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었다”고 썼다.

필자는 우연히 저명한 법철학자이며 이병도의 식민사관 수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는 고 최태영 박사의 저서 『나의 근대사 회고』를 접하게 되었는데, 홍범도의 어머니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최태영 박사는 저서에서 황해도 은율군 장련 직전리(피맛골) 소재 할아버지 소유의 산을 감시하는 산막 가까이에 커다란 선바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의 어머니 묘가 있어 내가 묘지기처럼 잘 돌보았다. 호랑이 포수들은

신미양요 때 미국 군함의 공격을 물리친 용감한 사람들이 었다. 홍범도는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 선바위를 비석 삼아 묘를 쓰고 만주로 나간 것 같다”라고 써 놓은 것이다.

홀아비 신세의 아버지는 젓동냥으로 어린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의 유즙을 얻어 먹이고 ‘암죽’을 끓여 먹이며 어린 생명을 키우기 위해 분투하였다. 아버지 역시 고달픈 삶을 이기지 못하고 홍범도의 나이 9세 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일제측 첩보자료에는 홍범도 부친의 이름이 홍윤식(洪允植)으로 되어 있다.)

어린 홍범도는 부잣집, 양반집, 관료배들의 아이들에게 천대와 괘시를 받을 때마다 같은 빈천자(貧賤者) 집안의 아이들과 작당하여 양반집 아이들과 패싸움을 벌이고는 했다. 어린 홍범도는 석전(石戰)이나 씨름에서 항상 우등을 하여 ‘홍장사’라 불렸고 평민(甁甂)의 아이들 가운데서는 위신 있고 친절한 청년으로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를 잃은 후 홍범도는 남의 집을 전전하는 머슴살이나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하는 입살이로 유년기의 삶을 이어갔다. 머슴살이라고 해봤자 차라리 “문서 없는 종살이”에 가까웠고, 입살이라 해도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 신분, 계급, 부(富)에 따른 착취, 억압, 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구조에서 홍범도의 생활이 나아질 리가 없었다.

고달픈 머슴살이를 벗어나고자 15세의 홍범도는 나이를 두 살 올려서 평양 감영 보병대에 입대하여 ‘코코수’(曲號手, 나팔수)로 4년간 ‘병정 살이’를 했다. 당시 조선 사회에 만연해 있던 매관매직의 악습은 군대에 만연했고 고급장교 자리는 양반이나 돈 많은 집안 자제들의 차지였다. ‘코코수’ 홍범도 같이 돈 없고 권리 없는 하등 병정들은 장교들의 잔인무도한 학대와 억압을 하염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군인 생활인 것이 아니라 지옥 생활”이었다. 결국 홍범도는 억압과 천대를 일삼던 악독한 장교를 처단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평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홍범도는 이후 황해도 수안(遂安) 총령(蔥嶺)의 한 제지소에서 3년간 ‘종이 뜨는’ 노동자로 혹독한 착취를 감내하며 일하였으나, 동학 입교를 강요하며 품삯을 주지 않는

자본가 주인 3형제를 처단하고 또다시 살인범으로 도주하는 신세가 되었다. 『홍범도 일지』에서 홍범도는 그때(병술년)에 각처에서 “동학이 불일 듯할 때입니다. 동학의 등쌀이 무서웠습니다”라고 회상했다.

홍범도는 어쩔 수 없이 금강산 신계사에 입산하여 변성명(變姓名)하고 지담(止潭) 스님의 상좌로 “삭발위승(削髮爲僧)”하고 1년간을 ‘중질’하며, “불도(佛道)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시키는 대로 노동을 하면서” “인간사회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조선 역사담을 많이 듣고 알게 되었다.” 특히 지담 스님은 을지문덕과 강감찬 등을 비롯하여 임진왜란 때의 이순신 장군, 의병장 김덕령, 서산대사와 사명당 등 외적을 물리친 위인들의 활약상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신계사에서의 ‘중질’을 하는 동안 홍범도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된다. 즉, 그동안 자기가 해온 단독행위는 “성난 김에 발길로 바위를 찬 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개인 공작이나 행동이 아니라 일반군중들과 같이 단결되어야 큰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고 한다. 홍범도는 또한 “인간사회와 인연을 끊었다는 중들이” “주인노릇하는” 절 역시 “봉건사회 인간들이 살고 있는 봉건사회인 만큼” 계급과 차별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절당 생활이 고달팠던 것만은 아니었다. 상좌 스님 홍범도는 여승당(女僧堂)에 머물고 있던 단양 이씨를 만나게 되고 마침내 함께 절을 도망치듯 떠나게 된다. 삼수·갑산 등지의 산간에서 포수 노릇을 하며 살고자 하는 두 사람의 꿈은 원산에서 만난 건달패들의 횡포로 산산조각이 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잃고 말았다. 홀로된 홍범도는 강원도 회양(淮陽) 먹패장골에 들어가 3년 동안 물지게꾼으로 살아가며 ‘총 놀이 공부(총 쏘는 법)’를 마쳤다.

일제의 을미사변 때 첫 봉기

홍범도는 청·일전쟁 당시 조국 강토를 유린한 청국과 일본 군대의 불법무도한 행동을 전해들었다. 급기야 1895년 일본인 사무라이들이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시해한 사건(10월 8일)을 계기로 홍범도는 그동안의 은둔 생활을 청산하고 의병 봉기에 나서기로 결심하였다. 그의 나이 27세였다.(제1차 거의)

명성황후 시해 사건 보름 후인 10월 24일경 강원도 회양과 김화의 경계 고개인 단발령(斷髮嶺)에서 황해도 서흥 출신의 김수협과 의병 봉기에 나서기로 의기투합하였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원산에서 서울로 가는 일본군 12명을 습격하여 총과 탄환을 탈취하였다. 두 사람은 곧바로 안변 학포에서 의병 모집에 착수하여 포수, 빈농 14명으로 구성된 첫 의병부대를 편성하고, 안변 석왕사에서 철원 보개산의 유진석 의진과 연합하기에 이르렀다. 의병 규모도 처음에는 300명으로 시작하였으나 1,400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세 차례의 전투를 치렀으나 훈련 부족 등으로 대패하고 의병진이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결의 동지 김수협마저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이후 홍범도는 3년 동안을 강원도, 함남 덕원, 황해도 지경산, 평안도 양덕, 성천, 영원 등 산간지대를 넘나들며 단독으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 반포를 계기로 일어났던 의병운동이 쇠퇴하게 되고 의병들이 남만주나 백두산 산울로 은둔하게 되고, 홍범도 역시 총탄, 의복, 신발 등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의병 활동을 청산하였다. 원산에서 헤어졌던 단양 이씨 부인과 재회하게 되었다. 1900년경 홍범도는 부인의 고향인 함경도 북청군 안산에 정착하여 농사와 포수 생활을 생계 수단으로 삼았다. 이때 가명을 버리고 금강산에 입산할 때 숨겼던 자기 이름 홍범도를 되찾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전의 의병활동 경력 때문에 홍범도는 러일전쟁 발발 후인 1904년 중반 무렵 일본인들에게 잡혀 감옥에 갇혔다가 6개월 만에 탈출 도주하고 얼마 후인 1904년말 재차 항일의병 봉기에 나섰다. 안타깝게도 러일전쟁시기 홍범도의 의병활동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제2차 거의)

정미년 군대해산, 총포 화약류 단속법 반포와 재봉기

홍범도가 본격적인 의병봉기에 나서게 된 것은 일제가 한국군대를 해산한 1907년 정미년, 그의 나이 39세 때의 일이다. 1907년 9월, 친일파로 채워진 한국정부가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을 반포하고 사냥꾼들로부터 총기를 강압

적으로 압수하기 시작하자, 함경도 일대의 포수들이 들고 일어 났고, 홍범도는 의병 봉기의 지도자로 추대되었다. 홍범도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포수들은 범잡이 대신 개잡이를 합시다”며 동지 포수들을 독려했다.(제3차 거의)

10월 14일 북청 치양동의 일진회 사무소를 습격하여 ‘동학쟁이’ 30여 명을 살해하고 회소를 방화하고, 다음날에는 후치령 허리원(中腹)에서 일본군 3명을 처단하였다. 홍범도는 갑산포수 27명과 더불어 ‘작의형제’를 하였다. 1907년 9월 중순경 이후 홍범도 의병부대는 삼수·갑산 등지의 포수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하는데 힘쓴 결과, 부대원수가 불과 몇 주일 만에 4,5백 명으로 늘어났다.

3차봉기후 첫 전투인 후치령 말리 전투(1907.11.25)에서 일본군 1,400명과 전투하였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 반수 이상과 조선인 보조원 230명을 사살하는 대승리를 거두었으나, 의병 동지들 가운데서도 일등 포수 6명이 전사하였다. 홍범도의 큰 아들 홍양순도 이 전투에 참전하였다. 홍범도는 『홍범도 일지』에서 첫 전투였는지라 의병들이 “총들 뿌려 던지고 썩 도망하고 한 놈 없이 우리 부자만 남았다”고 회상했다.

1908년은 함경도 일대의 항일의병투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였다. 전국을 점령하고 활개를 치던 일본군의 귀순공작으로 차도선 부대 등 귀순 의병이 속출하고, 홍범도에 대한 회유와 협박 작전이 집요하게 추진되었다. 3월 20일 일진회 간부 임재덕, 김원홍, 최정옥이 홍범도의 부인 단양 이씨와 아들 양순을 구금하고 회유책을 구사하였다. 이들은 단양 이씨에게 거짓편지를 작성케 하여 홍범도를 유인하는데 실패하자 발가락 사이에 심지를 끼우고 불을 붙이는 고문 등 악행을 가하였다. 단양 이씨는 협박에 굴하지 않고 혀를 끊고 병어리가 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일제는 아들 양순이로 하여금 편지를 휴대하고 홍범도부대 진영을 방문하게 했다. 홍범도는 아들 양순을 보고 대뜸 “이 놈아 네가 전(前)달에는 내 자식이지만은 네가 일본 감옥에 3,4삭(朔) 갇혀 있더니 그놈의 말을 듣고 나에게 해(害)를 주자고 하는 놈이야 너무 텀

썩 죽어야 하겠다고 하고” 총을 쏘았으나, 다행히 귀방울을 망가뜨려 떨어지게 하고 “죽기는 면하였다.”(1908년 4월 28일)

홍양순은 아버지 홍범도처럼 총쏘는 솜씨가 뛰어났다고 하며, 특히 홍범도 의병부대의 중대장으로 활약하면서 많은 전과를 올렸다. 특히 1908년 5월 15일경(음력, 양력, 6월 13일) 함흥 천보산 전투에서는 그가 창안한 “허수아비(인형)-꿀벌” 매복작전으로 일본군을 대파하였다고 한다.

천보산 전투 며칠 후인 1908년 6월 16일 함남 정평 바맥이 전투에서 홍양순 중대장이 전사하였다. 홍범도는 자신의 일지에서 “일본군 5백명과 싸우며 107명 잃고 내 아들 양순이 죽고 거차 의병은 의병 6명이 죽고 중상자가 8명이 되었다. 그때 양순은 중대장이었다. 5월 18일 12시에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고 회상했다. 시까까지 기억할 정도로 홍범도는 큰 아들 홍양순의 죽음으로 인한 통렬한 아픔을 말년까지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



▲ 1942년에 공여된 연극 <홍범도>(원래 제목은 <의병들>)의 한 장면. 연극 <홍범도>는 회곡 태장춘 연출 채영으로 홍범도 장군역은 후일의 인민배우 김진이 맡았다.

행사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대전모임 발족의 의미



오 광 영 홍범도기념사업회 대전모임 공동대표

지난 3월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대전모임의 창립총회와 발족식이 열렸습니다. 회비를 내는 1백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발족한 대전모임은 기념사업회 최초의 국내 지역조직이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대전모임의 태동은 지난 2021년 8월 홍범도장군님이 국내로 봉환되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8월 15일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이 특사로 파견되어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장군님의 유해를 모시고 왔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는 16·17일 양일간 임시분향소를 마련하였고 우원식 이사장님이 상주로서 시민들의 조문을 받았 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안장 이후에도 장군님의 묘역은 대전현충원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SNS에는 대전현충원 홍범도장군님의 묘소에 참배했다는 글과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으며 묘역에는 국화꽃과 각종 추모의 물건들이 놓여졌습니다. 유성구청에서는 홍범도장군님의 대전현충원 안장을 기념하여 도시철도 현충원역에서 국립대전현충원까지의 도로를 '홍범도로'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추모와 계승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대전의 뜻있는 이들이 모여 대전모임을 추진하게 되어 지난 3월 발족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념사업회의 활동이 이사회 중심으로 추모행사와 학술활동, 교류행사를 해왔다면 좀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는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대전모임은 현충원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일 뿐만 아니라 회원들간의 친목에도 힘을 예정 입니다. 또 어려운 독립유공자분들을 돕는 활동 등 봉사 활동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발족식에서 특별했던 것은 기념사업회 QR코드 판넬을 설치한 것입니다. 묘소에는 장군님의 업적이나 정신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것이 항상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참배하러 오신 분들이 간편하게 장군님의 업적을 알고 온라인 방명록에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기념사업회 회원에 가입할 수 있게하여 추모와 계승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대전모임은 선산을 지키는 소나무처럼 묵묵히 시민들과 함께 장군님의 자손이 되겠습니다.



기념사업회 소식 신임이사 및 감사 선임

3월 29일 정기총회에서 신임이사와 감사 선임식이 있었다.



- 이사** 우원식
- 이사** 오광영 (전 대전시 의원)
- 이사** 변재용 (한솔교육그룹 회장)
- 이사** 김선현 (오토그룹 회장)
- 이사** 황운하 (국회의원)
- 이사** 김장선 (㈜해밀리팜 대표이사)
- 이사** 이영희 (애지모 수석운영위원)
- 이사**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 이사** 김범규 (한국전기공사협회 상임감사)
- 이사** 성현주 (가톨릭관동대학교 미디어예술대학 연기예술 전공 교수)
- 감사** 김종욱 (법률사무소 울전 변호사)

회원 동정

회원 동정



우원식 이사장

우원식 이사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주69시간 노동개약을 막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철회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서 ▲농어촌 및 재생에너지 배당형 기본소득, ▲횡재세법 및 탄소세법을 통한 기본금융, ▲기본주거, ▲乙기본권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이사장은 이임하는 듀센 바예프 (Bakyt DYUSSENBAYEV) 주한카자흐스탄 대사를 4월 12일 접견하고 5년간 재임기간 동안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등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한 대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의를 표하였다.



채예진 이사

채예진 이사는 2022년 12월 31일 국립민속박물관 사업으로 민속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한종관 이사

한종관 이사는 2월 20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진안 출신으로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5년 2월 19일까지 2년이다.



홍재구 이사

홍재구 이사는 남양홍씨 대중중 중앙총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4월 11일 취임식을 가졌다.



정우기 이사

정우기 이사는 전자공학박사로서 과학교양도서 '영화로 보고 과학이 말해주는 미래세상'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서 과학기술이 반영된 미래를 예측한 7편의 영화를 예시로 들어 인간의 현재 과학 수준과 발달 양상을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